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2018
No.77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박재묵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8. 5. 31

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민선 7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5월 2일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대전NGO지원센터 대교육장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민선 7기에 꼭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 주제로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의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원탁토론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민, 여성가족정책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참고해 성 주류화, 노동, 여성대표성, 공동체, 돌봄, 복지, 인권·안전, 청년 등 8개로 테이블을 나눠 문제 도출 및 의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실질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과 여성의 고용 및 사회 참여 평등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분야별 정책의제



성주류화

- 여성 인재에 대한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책 개선
- 인사 불이익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모색
-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포괄적인 분야의 성 주류화 교육 마련



노동

- 전문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과 민의 협치 체제 구축
- 스토리텔링을 통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지원 전략 강구
- 4차산업 관련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료수집, 연구, 교육 실시
- 다문화여성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교육 필요
- 여성 취·창업 기관 및 일자리 정책 홍보 강화



여성대표성

- 현저히 낮은 여성후보 공천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등 여성대표성 관련 정책 시행 효과 미미
 - 실질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보장
 - 핵심부서에서의 여성 리더 확대
- 일상 언어의 변화를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 언어 모니터링 실시
- 성평등 정책 감시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공동체

- 공동체 이해가 깊은 주부의 공동주택 대표자 활동 장려
- 청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마을활동가 구성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 및 교육 참여의 기회 확대
-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활동가 관련 예산, 교육 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ex. 마을·작은도서관 활용)

#지정토론 말말말

“유리천장,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사회참여 단절 등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앞장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국
부국장

“여성가족 안에 안전, 복지 등을 통합하고 목소리 내기 위해 성평등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여성가족원이 구심점이 되어 동네마다 소통창구인 마더센터 설립되어야”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모여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해”



이영세
대전세종여성가족
정책포럼 공동대표·
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면서,
대전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대전시는 미비하며, 높은 1인가구
비율과 자살율이라는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래숙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 주무관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정책방향 설정에 관심을 모아야”



최해경
대전세종여성가족
정책포럼 공동대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콜로키움 #공동체

제2회 젠더 콜로키움

마을에 젠더를 입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마을에 젠더를 입히다- 여성, 남성이 함께 꿈꾸는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번 콜로키움은 관저동 관저공동체연합석은자 활동가, 정림동 수밋들어울벗 김화진 활동가, 월평동 새뚝한울 이채진 활동가의 발표에 이어 대전시 서구청 김혜정 여성친화도시 담당 주무관과 이상미 지역공동체 담당 주무관의 지정 토론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통합 정비가 필요하며, 중간 지원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돌봄

- 돌봄사업 관련 시행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므로 부처 연계 및 정책 일원화
-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전달체계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의견 수렴
-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는 일·가정양립 책임을 극복하기 위해 돌봄의 인식 전환 교육 실시



복지

- 노인돌봄에 있어서 국공립 차원의 지원 강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재정 투입 필요
- 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보다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인권·안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의 다양화 필요(ex. 인권, 안전, 성폭력, 가정폭력 등)
- 다문화 주민들에 대한 선주민들의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
 - 원스톱서비스 인프라 개선
 - 피해자 자립 지원금 확대
- 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ex. 중구 주민참여단 부재)



청년

- 방과 후 대안으로 대전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필요
 - 자치구별 운영 공간 형평성 있게 마련
 - 매칭펀드 등 재정적 지원 실시
-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강화
 - 조례 수립 및 시설 확충
 - 청소년상담사 처우 개선
- 정책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제도 구축
- 청년 지원 정책 관련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연대하기 위해 非청년계층 대상 여론 개선 필요
- 청년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모색
- 청년 대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 강구